

전쟁기념관 전시와 교육에 나타난 ‘기억’의 문화정치학*

—안보와 평화교육의 공존가능성의 모색을 중심으로—

김 상 미**

- I. 머리말
- II. 공식기억 창출과 전승 공간으로서의 전쟁기념관(물)
- III. 해외의 전쟁기념관 교육프로그램
- IV. 예술표현의 매개로서의 전쟁기념관—창조적 교육기관의 가능성을 찾아
- V. 맺는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전쟁기념관(戰爭紀念館)의 체험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관 교육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문화적 기억’과 ‘자전적 기억’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지역문화와 전시교육의 실천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전쟁기념관의 건립목적과 전쟁기념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전시물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식기억’의 창출과 전승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은 분단국가가 형성된 원인을 교육시키는 장소이며, 가장 뚜렷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기억시키게 만드는 공식 기억의 창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국가관 강화와 창의적 인간교육이라는 상당한 괴리감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4-G00033)

**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연구소

여기에서 국가의 공식기억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념관을 대상화하여 공식기억을 해체하고 역사인식을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시킨 사진가, 혹은 ‘전쟁’ 자체를 비판하는 일군의 예술가들의 시각이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진예술가들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공식기억’을 수용해 예술로서 표현시켰으며, 그들의 예술작품 속에서 모순된 교육목표가 합치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기념관은 상이한 교육목표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공간임과 동시에 교육목표에 합치되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전쟁기념관, 기념관 교육, 안보교육, 통일교육, 문화정치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전쟁기념관 및 전쟁기념시설물의 안보, 평화 체험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성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전쟁기념관은 선택적으로 수집한 기록물들을 물리적으로 집약적인 공간에 재배치하고, 이를 통해 과거에 관한 기록을 통해 새로운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전쟁기념관이 변화하는 시대, 다문화적 상황과 거대한 데이터들이 연속성을 띠며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가중심의 '박물관·기념관'의 전시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어떤 의미를 재생산해 왔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향성의 제시 등, 미래세대를 교육시키는 시설로서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시적 형태의 정보와 시각 이미지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또 다른 정보로서 재생산되고 있는 '기념관'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관(官) 주도의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관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해왔다는 사실은, 역사적 지식을 '기념물'의 일종으로 바라보게 된 현실에 일조해 온 근원이 아닐까. 본 연구에서는 전쟁기념관의 교육에 대한 검토와 국가수호시설물에 나타나는 교육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현 국가의 환경에서 강조되는 안보교육과 미래에 추구해야할 평화교육, 특히 미래형 체험교육의 모델로서 해외의 사례(미국, 일본)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국가보훈처,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안보 교육 교재에 나타난 교육목표를 통해 국가안보교육 내용의 대 항목을 살펴보고, 국가수호시설물로 인정된 국내의 전쟁기념관 13개 중, 7개관에 나타난 한국전쟁관련 교육의 내용에 관한 기관별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전쟁관련 교육은 '총체적 통일교육'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은 군, 학교, 기념관,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각 기념관의 경우, 전시해설과 같은 전시물과 실제유물을 중심으로 자체프로그램과 국방부의 행사 및 안보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이때 지역문화시설 기반의 체험교육 사례인 기념관의 교육은 13개 모두 역사,

안보관광지로서 지역주민에게 활용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전시해설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장소는 총 8개의 기관에 그쳐 각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7개 기념관명과 관별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기념관의 6.25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 현황

기념관 명	세부 내용	비 고 (개설수)
전쟁기념관	잊지말아야할 기억, 어린이 박물관학교, 찾아가는 호국안보실 등	17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호국보훈교실 역사탐방, 어린이 역사교실	2
낙동강 전승기념관	고교생 통일 대비 민주시민 교육	1
김재옥 여사 기념관	어린이 역사 교실	1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호국보훈교실, 역사탐방	2
학도병기념관	어린이 역사 교실	1
철의 삼각전적 기념관	호국보훈교실, 역사탐방	1

* 표 1의 내용은 기념관별 공식 사이트(7개관)와 보훈처‘현충시설물’자료를 참조하였음. 2013.1.)

국내에는 안보교육지침에 따라 통일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전쟁기념시설, 민간기관 등에서 각 기관에 적합한 교육대상과 각 기념관별로 특수한 내용을 연계한 안보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의 경우, 전쟁기념관에서 6.25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성인군(공무원교사포함, 일반인), 어린이(유아, 초등), 청소년군(중, 고 등부)등 연령대별 기준과 소속군으로 나누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타 지역의 상징적 기념물이나 기념비를 포함한 국가수호시설물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구성하는바 본 논문에서는 전쟁기념관(용산소재)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II. 공식기억 창출과 전승 공간으로서의 전쟁기념관(물)

한국의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대상화하는 국가의 교육목표와 국가관을 강화하려는 장(場)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를 주도해왔으며,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표상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역사와 문화적 산물의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문화정치가 고도로 작동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인 것이다.¹⁾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첫째 전쟁기념관이 국가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공식기억의 전승과정에서 발견된 폐단을 보여준 공간임과 동시에, 오히려 전쟁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예상치 않은 문제(기념의례적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 공간)를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다.

1. 전쟁기념관의 교육목적

국내의 전쟁기념관은 일반적으로 국가수호시설물 에서도 전시의 성격이 강한 '박물관'의 범주에 해당하고, 전시·보존·수집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도 담당한다.²⁾ 앞서 살펴보았듯 기념관 다시 말해, 전쟁기념관이라는 전시공간은 오늘날 분단국가가 형성된 원인을 교육시키는 장소이며, 가장 뚜렷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기억시키게 만드는 공식 기억의 창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먼저 전쟁기념관의 시설물을 주관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교육목표를 통해 전쟁기념관의 교육목표를 유추할 수 있다.

“전후세대에게 오늘날의 북한실상과 6·25 전쟁의 역사성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참전국의 희생과 혈맹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여 안보불감증 확산방지 및 전쟁미 체험 세대의 안보의식 고취를 통해 비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비한다.”

전쟁기념관의 교육의 경우, 평생국민교육의 실천을 목표로 다양한 연령대와 장소에 따른 상시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22개의 기념관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은 강연형(16), 투어형(2), 복합형(4)으로 구성되어 있다.³⁾ 그 중 기념관

-
- 1) 전쟁기념관에서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닌 미디어적 특성과 '전시'라는 재생산 양상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공간이며, 국가관이나 역사를 교육시키는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라는 점에서 연구가 시급하다. 즉, 사진이 재배치되는 '장소', '역사적 시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해석의 장을 전쟁기념관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와 전쟁기념관이 근현대 미디어에 대한 연구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 규정한 박물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실물을 대하기 어려운 역사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역사탐방 및 체험 교육의 확산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 논문은 좋고,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국가관교육의 충돌장소」,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학교 교과교육과정의 적용과 질관리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9.21.)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 2) 전쟁기념관 (Available: <http://www.warmemo.or.kr> 2012. 5. 14.)
 - 3) 전쟁 60주년기념사업회의 조사(2012)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현충시설물(총 652개) 중 안보교육기관은 총 110여개로 정부기관(26관), 대학 및 연구기관은 (43관), 민간은 (26개관), 기업(4개관)으로 집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의 교육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각기 연령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총 16개의 강연식 프로그램과 2-3 개의 안보전직지

과 안보전적지를 연계한 답사 특히, 안보 전적지 답사프로그램의 경우 철원과 서부전선 그리고 동부전선을 투어하게 되는데, 전쟁기념물이 문화적 소비대상으로 정착한 사례로 기존의 안보관광과 문화적 소비를 지향하는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을 결합시킨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⁴⁾

문제는 평생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대상의 확대와 복합시설물을 갖추게 된 기념관(물)들이 ‘미래교육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에듀인포테인먼트(Eduinfotainment)를 표방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만을 변화시켰을 뿐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 안보, 군사 체험 등, 내용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나 국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별도의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이다.⁵⁾

서울, 전쟁기념관(시설물)의 <6.25전시관 1>의 전시구성물 중 가장 첫 번째 영상은 전쟁유해발굴사업 관련 설치물과 대형 영상 설치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상설치물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는 맥아더의“Freedom is not free!”로 국민에게 ‘희생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우려를 안고 있었다. 즉, ‘자유를 얻기 위해 반드시 국민의 희생적 측면을 강조’하여,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명백히 고취시키려 한 상징적 사례이다.

기념관의 체험학습의 경우, 국방부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안보 현장 견학과 국군체험활동과 같은 활동이 통일교육이라 명명된 채 그대로 공식기억으로 고정된다는 측면에서 전쟁으로 인한 폭력, 집단과 사회, 안보와 평화등 에 관한 제정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현재 국내 기념관에 적용시켜 개선할 점을 지적해보면, 첫째, 국가 간 갈등상황뿐 만아니라 사회내부의 폭력과 갈등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된 문제임을 인식시켜주는 교육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안보와 평화라는 상반된 두 개념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때 향후 사회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도약할 구체적 실천방법을 마련할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해결과정에서 해결방법의

를 답사하는 투어형 프로그램이 공통적 특성이다. Available: <http://kosis.kr/bukhan>. 2013. 1.

4) 정호기, 「전쟁 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과 공간의 변화 : 한국에서의 전쟁 기념물을 중심으로」, 비교역사문화연구소(편),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9), 529-530쪽.

5) 통일부, 『통일백서』를 2010-2012 까지 3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였음. Available: <http://narasarang.mpva.go.kr/2013.1.30>.

범위는 열어놓고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자기주도형 학습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주도적으로 교육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들은 이 제한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기억과의 만남을 통한 예상치 못한 상황과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 인식된 과거의 사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수(複數)의 기억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기억들이 이데올로기의 질서에 따라 일체화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미디어 그 자체—사진, 영화, 동영상, 게임 이미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디지털 환경이나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국내 전쟁기념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이라는 국내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가 있다. 이 현충시설 정보의 주요 내용은 “근현대 역사 체험 학습 장소”로서 국가수호시설물을 소개한다. 여기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사례를 크게 독립운동시설물 / 국가수호시설물(16개)을 소개하는데, 이 구분은 여타의 국가기관의 연계기념시설물의 소개를 참고하여 보면 그 범주가 상이하고, 구분체계도 모호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의 현실은 '체험 교육 기관'으로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지 못한 채 동시에 후세대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반시민과 청소년 세대에게 주체적, 자율적 참여 의지를 고양시키고 체험 교육의 장으로서 올바른 역사 문화 교육을 실천할 교육에 관한 조사에 앞서 현재 복합 문화 공간을 목표로 건립한 전쟁기념관의 교육을 검토해본다.⁶⁾

전쟁기념관의 경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에 관한 질문을 통해 '기억'의 내용

6) <표 2> 와 같이 기념관 교육의 분류는 대상, 주관기관, 교육방법, 내용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 연구대상인 7개 기념관의 정보게재 내용에 기준하도록 한다. 주로 청소년대상의 정부주도 복합형의 교육이 실시되는데, 전시관람, 탐방, 체험학습, 투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가주도의 교재를 선택하고, 교육 방법이나 역사인식,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을 연간 필수 교육 및 직업군별 의무교육,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교육에서 전쟁을 경험한 '할아버지'에게 역사적 증언을 전시관람과 함께 학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된 점이 나타나고 있다. 후에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양상이 미래세대로 하여금 창의, 인성 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교육 교재 및 매체도 다양해져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나 게임,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와 비행기, 잠수함의 모형을 만드는 등,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vailable: <http://www.warmemo.or.kr>. 2013. 5월

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지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기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훈을 전달한다는 건립 목적에 따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戰爭記念事業會)와의 협조 하에 전시 및 교육을 구성·개발하고 있었다. 최근 “2013년도 전쟁기념관 교육의 구성은 8 가지 주제의 22개의 프로그램으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중 70%를 넘는 약 17개의 프로그램이 6.25 및 전쟁사, 남북분쟁을 핵심으로 삼아 각 교과영역(역사, 도덕교과 등)을 통합하여 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념관의 교육은 교육모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로 나누어 보았다.

〈표 2〉 전쟁기념관 교육프로그램의 분류

구분	유형	내 용
교육 대상	성인	성인, 교사를 비롯한 특정 직업군의 직무교육
	청소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장애인등
주관 단체	정부	국방부(육, 해, 공군의 안보체험교육), 국가보훈처(나라사랑 교육과, 전쟁기념관), 통일부(통일 교육원)
	민간	나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국가에서 선정하여 운영(총 26개관)
교육 방법	강연형	국가안보 및 군사학 등 전문 학술 분야 강연 체험자의 증언 및 역사적 사건을 강연
	기념형	6.25, 국군의 날 등 각종 추모, 기념행사 및 공연, 전시, 그리기 대회, 만들기 대회, 글쓰기 대회 등 이벤트형
	탐방형	안보시설을 견학, 기념시설물을 투어형식으로 지역문화 연계 시설 방문과 같이 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
	복합형	기념형 + 탐방형, 강의형+ 체험형을 동시에 진행, 2회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안보교육’의 형태
	디지털형	IPTV, 소셜 커뮤니케이션 등을 활용한 쌍방향교육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적극적 자료공유
주요 내용	안보 지향형	국가 안보를 강조, 군사학과 같은 안보중심의 내용
	보훈 지향형	전사자 및 희생자 추모 및 역사적 기억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
	평화 지향형	미래의 희망과 평화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교육 내용을 구성

교육 내용에서 전시설명을 비롯해 각종 연계시설을 방문하고 관련 경험을 학습하는 경우를 체험형 교육이라고 명명한다. 특히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의 재편에 따라 달라져 국군 발전실의 재개관에 맞춘 새로운 체험형 교육(천안함 사태(2012)-『천안함관련 교육』, 연평도 해전(2010)『참수리호 만들기』)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수호기념시설물을 체험형 연계학습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역사문화여행을 순회하는 등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 증설되었다.

특히 전쟁기념관의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경우, 국가보훈처(2011)에서 실시한 체험 학습 우수 교안에 채택되는 등, 전쟁기념관의 교육사례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⁷⁾

여기에서는 참수리호와 관련한 만들기 수업이나 기념관의 안보전시관을 관람하는 체험활동을 하였다. 특히 참수리 357호정의 경우, 안보전시관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국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F-15 3D입체영상체험』, 『K-2소총사격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내용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또한, 평화화국벨트와 같은 지역권의 연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적 소비라는 측면을 강조한 다크투어리즘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한국관광공사(韓國觀光公事)와 함께 시(市)·도(都)차원의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소개, 설명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과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유적지의 방문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자원의 소비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각 체험의 성과를 기관별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교육취지를 밝히는 것보다 단순히 역사 문화장소를 방문한다는 체험적 측면만을 강조할 뿐, ‘평화적 통일’이라는 긍정적 교육효과까지 인식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체험학습이라는 형태의 교육에서 1회성 이벤트의 성격으로 그친다면, 평생학습의 장(場)으로서 실천되어야 할 다크투어리즘의 진정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분단 현실에서 국내의 교육이 폭력/ 평화라는 이중적 성격을 떨 수밖에 없는 현재에, 지향해야할 방향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관한 답변을 찾기 위해 해외 교육 사례인 미국, 일본의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Ⅲ. 해외의 전쟁기념관 교육프로그램

1. 미국 박물관의 사례

7) 정호기, 같은 책, 530쪽.

8) 전쟁기념관, 「서울시 교육청 우수 현장 체험 학습기관」 『전쟁기념관』 (2011) 2쪽.

1)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희생자의 추모에 대한 기억의 몰입



<그림 1> 미국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형물과 행렬행사 중인 어린이들

미국에 건립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42개의 지역에 140여개 분포하며,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에 기념행사를 통해 ‘기억’한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은 링컨기념관과 백악관 사이에 위치한 대표적 기념시설물이다. 특히, 한국전쟁을 테마로 한 <워싱턴 D.C 기념관>에

는 상징적 조형물이 있다.⁹⁾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 설치된 6.25전쟁관련 설치물은 약 청동 환조 설치물이며 총 19명의 희생된 군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조형물 주변에는 2m 가량의 구조물(담)이 있고 대형 명비에 희생자의 명부가 부조로 새겨져 있다. 그림과 같이 19명의 전쟁영웅은 오늘날,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기념시설물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기억되고 있었다.

국내의 추모비나 기념비, 전승비처럼 단순한 대형 조형물로서 사건의 기념적 성격을 강조하거나 전사자 명부만을 나열한 전사자비의 형태와는 시각적으로 다르다. 덧붙여 명부 하단에는 한국전쟁에 관한 그들의 기억에 관한 짧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 없는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비문에서 미국의 희생정신을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의 인물(참전용사 / 희생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이 조형물에서 상징적인 효과를, 그 주변부를 둘러싼 객관적 기록-참전용사의 명부 혹은 사진을 통해 상징적 조형이미지와 구체적으로 전사자의 명비를 한 장소(공간)에 배치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몰입하도록 배치하였다.

2)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가르치는 교사부터 주체적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주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사

9) 국가보훈처, 『6.25전쟁 60주년 un참전 기념시설물도감』 2권(서울: 보훈처, 2010) 16쪽.

이러한 교류의 확산, 역할분담극 등 다문화 간 갈등이나 문제해결 및 극복으로서의 대안적 모색을 실천하는 미국의 워싱턴 D.C 홀로코스트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의 경우, 유대인 학살에 관한 내용을 전시의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¹⁰⁾ 최호근(2004 : 133)이 “홀로코스트와 대량학살에 관한 사례를 더욱 치열한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적 영역의 기억이 공적영역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지적했듯, 또한 미국이 사회와 도덕적 인성을 가르치는 공교육 내용 중의 하나로 홀로코스트를 의무화하여 채택한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시화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먼저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전시품 중 일부를 감성적 조형작품으로 형상화하여 전시하고, 그 감상기록들을 사이버 박물관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다양한 투어프로그램과 교육, 행사, 이벤트 등의 정보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자료 및 교육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기도 한다.



〈그림 2〉 홀로코스트 기념관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안내화면

사이버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역사교육은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관련 학습자료 및 수업지침서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날카롭게 제시된다. 이들은 주로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와 사회과목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역사의식’을 유의미한 내용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그들은 교사의 가치와 사고방식, 어투 등 모든 활동에 중립을 지킬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① 자신이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② 학생의 역사 학습 내용과 ③ 교사의 가이드 라인(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the Holocaust) 및 ④ 지침서를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는 서로 교환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폭력의 내용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도록 돕는다.

“왜 학살에 대해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가?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라는 교육

10) 홀로코스트 박물관 Available: <http://www.ushmm.org/> 2013.1.29.

11) 최호근, 「홀로코스트의 공간적 재현 :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대표적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 18호(2009), 47-78쪽.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이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교사에게 역사를 인식하는 명확한 기준과 개념설정을 돕게 된다. 동시에 『집단학살에 대한 교육의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교육방법을 스스로 정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곧 도덕적 인권과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준다.

만약, 박물관 평화교육이 도덕적 기준과 역사관 정립을 교육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전쟁이나 폭력을 통해 보편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학습할 의미가 없다.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의 갈등상황—다문화, 인종차별, 전쟁, 희생자, 인권, 편견 등—과 연관시켜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언젠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이때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침묵·무관심·소외—도 동시에 학살에 가담한 사례의 예로서 제시한 부분은 인상적이다.

교사들에게 제시하는 교육방법의 구체적 지침에서는 관람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만났을 때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단순히 희생자에 대한 감정적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나와 다른 집단(나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을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단지 학습자로부터 먼 역사적 이야기일 뿐이거나, 경험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우려를 대비해 질문이나 게임 등 학습자의 적절한 행동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홀로코스트의 상황을 ‘역할극(role-play)’을 순차적으로 체험해보도록 한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체험해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직접 가해자 역할을 했을 경우와 희생자의 역할을 했을 경우를 나누어 제시하여,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집단학살은 특정 전쟁영웅이나 전쟁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정해진 사회적 침묵, 암묵적 행위도 이 학살에 가담한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 단체, 정부의 관계에서 개인은 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인간에 대한 차별, 편견, 증오는 매우 위험한 시각임을 깨닫게 만들어,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차별, 편견에서 탈피하고 학습자에게 현재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양성의 수용,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진과 같은 미디어의 진실성에 관한 시각도 학습하도록 한다. 즉 “사진의

이미지 전부가 처참한 역사현장을 모두 보여줄 수 없고, 이 사건의 전부로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전달방식에 관한 적절한 교훈도 남겨준다. 이병준(2008 : 156)은 “오늘날 홀로코스트를 겪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역사 체험과 미적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며 교육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전적 기억과 결합하여 새로운 역사 문화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시각적 맥락화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¹²⁾ 이러한 기억의 공간에서 미치는 교육의 영향력은 그 어떤 매체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흔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에게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전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기념관은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즉,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 외면, 무관심도 이러한 희생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2. 일본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1)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의 박물관(廣島平和記念公園, Hiroshima Peace Center)은 원자폭탄의 참화를 경험한 후 평화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건립하였다. 이 기념관의 경우, 해마다 다양한 피폭 자료를 집대성하여 전시하고 평화축제, 평화 선언등의 행사를 치른다. 이 중 평화선언문은 전 세계적으로 “절대평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기 위한 평화교육(1982)”이라는 교육목적을 당면과제로 규정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99개국 425개의 지역이 함께하는 연대로서 성장했다.

1991년부터 해마다 <평화선언문>을 통해 이 기념공원에서는 다양한 평화 행사를 거행하는데, 핵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며 이를 지구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취지의 범세계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 이벤트를 통해 행사참가자들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평화 기념 공원은 평화를 ‘지속적 활

12) 이병준, 김미화, 「기념관, 역사, 미학 그리고 학습, -미국과 독일의 사례연구」, 『조형교육』 제 31호(2008), 143-165쪽.

성방안으로 전승'해왔고 이를 전 지구의 문제로 규명하며,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통하고 공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념관에서는 피해자와 관람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전시를 통해 재생산하고 해외와 교류하여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평화클럽(peace club)>이라는 프로그램은 자발적 학습의 일종으로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피해자와 교류까지 갖게 되는 방법까지 설정하도록 중계역할을 한다. 그밖에 체험학습으로 캠프, 체험담듣기, 영상물 시청 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특이한 점으로 초·중·고등학교 견학 시에는 사전에 교육 자료를 송부하여 스스로 연습하게 만든 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투어와는 다르다. 관람자는 이 박물관에 머무르는 동안, 가이드와 전시해설 등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스스로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과거의 기억을 학습하는데, 이 때 협조자로서 기념관은 자료를 협조하거나 체험자들 간의 연결을 돕는 소통의 매개로서 링크(link) 역할을 할 뿐이다.

2) 리츠메이칸 대학의 국제평화 뮤지엄

리츠메이칸 대학의 국제평화 뮤지엄(立命館大學 國際平和博物館. The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Ritsumeikan University)에는 이 대학의 오랜 역사와 전통인 '평화 창조 전시실 1, 2, 3'과 '무언관·교토관-생명의 화실'로 구성된 전시장이 있다. 먼저, 관람동선을 살펴보면, <평화창조 전시실 1>에서는 평화갤러리에서 만들어 예술작품을 통해 감상을 하고, <평화창조 전시실 2>에서는 미니 기획전시실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전시를 기획하도록 하는데, 이때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량을 기르도록 국제분쟁, 폭력, 재해와 같은 넓은 범위로 그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평화창조 3에서는 주체적으로 평화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주변,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이벤트, 대회, 성명, 강연 등 다양한 도네이션(donation)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어린이를 위해 제시하는 평화적 어린이상과 같이 동료 평가 및 자기평가까지 공유하는 경험을 전시하고 있다. 특별한 작품을 조용히 마주보는 활동을 체험시키기도 한다. 그들의 이 전시장에는 총 4개의 전시실이 유기적이고 성장형 곡선을 띠며 주체적 사고를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연결된

다. 아래의 그림은 필자가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의미하는 바를 유추한 교육의 메시지를 단계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3> 리츠메이칸 박물관의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2013.1.23.)

<그림3> 과 같은 사례는 인간의 삶속에서 생성하는 기억과 그 기억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의 역할을 재검토해야함을 시사한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나타난 폭력과 평화에 관한 전시교육의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킬 사회적 장소로서 기능하게 하며, 이 의미에 관하여 평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출 가운데에서도 세부 내용은 주체적 구성하고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설정한 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일본의 경우, 관람자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중계자 혹은 조력자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위의 두 평화박물관의 사례는 평화 창조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나아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까지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 사례이다. 따라서 '지속적 교육의 실천 가능성, 주체적, 자발적 교육'을 실천한 기념관의 사례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는 긍정적 측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할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국내의 전쟁기념관과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

한 상황의 한국 전쟁기념관에서 교육해야할 방향성을 비교하였다. 그렇다면 이 두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기념관(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IV. 예술표현의 매개로서의 전쟁기념관—창조적 교육기관의 가능성을 찾아

1. 평화적 관점을 키워나가기 위한 발판—기념관 교육프로그램

기존 기념관 교육의 문제점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전후세대의 기억에 대해 증명하기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며 단순한 평가지표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정부 그리고 이를 기념했던 기념관 모두 합의된 적절한 교육목표와 체제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합의점 없이 각 기관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방법을 채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국내의 기념관마다 설립목적이 다르듯, 전쟁에 관한 교육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각 기관의 유형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이를 특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및 방법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라면,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통해 시대에 맞는 창조적 교육기관으로서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① 첫째,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이다. 현재 상황에서 안보—통일의 양면적 특성을 인정하고 전쟁, 폭력에 관한 내용이 전시된 특수한 공간의 경우, 특히 주체적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 기념관 사례의 모형을 답습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교사 및 교육운영기관에서 독자적인 학제연구를 비롯해 해당 교육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교사 간 네트워크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중심의 총체적인 통일교육 및 전쟁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세대 간 격차와 무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면, 전시물을 단순한 시각 정보로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별 내용을 정비하고 전시의 성격을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별 기념관의 건립의도와 목적은 ‘전쟁’, ‘군사’, ‘평화’, ‘지역문화’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과 연계한 스토리를 재구성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시도를 해야할 것이다. 특히 지역문화와 연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통합교과의 콘텐츠로서 전

문적 연구에 중사할 지역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시기획자, 교육자, 해설자에 인적자원을 확충하거나 순회의 형식으로 전시별 인적자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기념관의 현 교육프로그램은 전시해설 및 역사적 내용을 강연하는 등 전시물을 안내하는 형태의 체험 교육이 대부분이고, 기념관 중 일부는, 해당 기념관의 설립 목적이나 지역적 특성과 무관한 순회전 형식의 전시를 개최하거나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기념관의 개성이나 고유한 특성이 상실된 채 운영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만약 ‘지역이나 인물등 사건성’이 강조되는 전쟁관련 전시시설물의 경우, 관람객의 방문수가 적더라도—국가 혹은 공교육기관의 연계교육—해당 시설물의 건립의도 및 목표에 기반 한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모 및 행사지원을 민간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② 둘째, 통일교육과 통합교과에 관한 연계성을 위해 교육목적을 하나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 지식의 변화와 공간인식능력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으며 현재의 제도와 환경에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을 확고히 해야한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시대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시 콘텐츠의 확보 및 교육내용의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를 들어 ‘STEAM’과 같은 과학 + 예술이라는 융·복합적 학문의 실천을 변화의 과제로 삼아 전문적인 예술분과의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과학이나 수학교과목의 경우, 예술교과목과 연계한 통합교육이 교육적 효과가 증대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¹³⁾ 특히,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의 경우,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정보와 통계로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과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에 적합한 새로운 예술적 시도로써 평화적 메시지로서 전환시켜볼 수 있다. 즉, 국가수호를 위해 발명해낸 과학기술, 전략 전술을 위한 창의적 사고, 리더십, 문화전파와 같은 사례를 선별하여 교과내용을 새롭게 재편한다면, 기존의 역사, 도덕, 사회교과만의 통일교육을 넘어

13) 전쟁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은 2012년 8개에서 2013년 17개까지 빠르게 확장되었고, 향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변화가 예상된다. 이때 안보와 통일 평화의 내용구성은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현 교육대상인 청소년층의 경우, 민, 관의 결합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한국형 전쟁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진보를 접목시킨 사례로서 발전할 수 있다. 이 때 미술교과의 표현활동의 일부를 통합시켜볼 수 있는데, 조형요소와 원리에 관한 탐색을 동시에 학습하는 내용을 예로들 수 있다.

③ 셋째, 창의적 인성교육으로서의 연계성에 관한 문제이다. 전쟁기념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단순히 역사적 시각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 인적자원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은 현재의 시각과 역사의 사건을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중요한 ‘기억’을 형성하는 매개체이다. 현재의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시각문화미술교육(VCAE)’에 따라 지역이나 기념관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예술체험 연계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예술로 형상화하고 동시에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주제적 학습과 같은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전쟁기념관의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형식적 통일 교육이라는 고착화된 시선이나 단순한 자료적 나열형식의 특별전(展) 등, 지역의 특성과 해당 기념관의 건립목적과 무관한 전시들로 인해 정체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예술교과의 내용이 인문학적 사유방식과 예술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간 갈등을 조정하고, 위기 혹은 폭력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 인성적 사고를 요구하게 되고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제’를 살펴봄으로서 통합 교과목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예술표현의 매개로서 작동하고 있는 전쟁기념관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사례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즉, 표현의 매개체로서 ‘전쟁과 평화’라는 상징적인 개념을 현재의 세대와 교감하기 위해 필요했던 방법이 바로 예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현 세대의 거울로서 적절한 시대의 거울로서 역할을 해왔고,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 공통의 합의점에 도출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교육방법의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창조적 예술매체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를 교육방법으로 제시할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2. 새롭게 창출되는 공식기억, 전쟁기념관-예술표현의 매개로 대상으로

최근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화해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양한 전후세대의 증언과 증거물로서 예술작품이 제작된다. 그런데 그들이 제작한 예술작품은 타인에게 공유되면서 혹은 예술과 한국사회의 분단현실이라는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해석될 뿐 이것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기념관에서 활용한 사회 참여형, 실천 지향형의 사례로서 상이한 공식기억의 전승양상을 구체적인 교육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작품의 일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피사체는 '전쟁기념관'을 시각이미지로 남긴 사진작품, 현대 미술(예술)의 장르 중에서도 기념관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예술작품 중 비교적 전시빈도수가 높았던 작품을 골라 그들의 기억의 전승의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전쟁기념관이나 분단의 현장은 '수난사'와 '갈등' 지역으로 상징적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분쟁지역의 폭력성이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방문한 많은 국내외 관람객은 사진을 매개로 이 기억을 기록하고 재생산한다. 이때 사진은 생소하고 낯선 지역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기억,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의 경험적 기억을 되살리고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사진예술가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바라본 우리 스스로를 비추는 매개체로서 분단 풍경에 주목한다. 이렇듯 예술적 감수성을 표출해낸 사진들은 '사건의 충격성'만을 강조한 보도사진이나 기록만을 강조한 사진과는 별도의 시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주체적 사고'를 담은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시킨다. 여기서 포토몽타주, 포토샵 등 디지털 이미지의 결합에 자유로워진 예술가들의 성향도 이들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진과 회화적 감수성의 결합은 이것을 곧 기록과 사건 감성이 동시에 결합한 화면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매우 높았다.

완벽하게 분리된 전쟁세대와 그 2세대는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주변 인물이나 추억의 물건, 기능이 달라지거나 지형이 바뀐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이미지로 표현한다. 기존의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을 당시의 목적이 기록적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사화 되면서 재해석되는 양상은 전후세대에게서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쟁세대에게 그들이 남긴 사진은 체험과 그 시점에 남겨진 기억의 증거물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요구한 희생적 측면이나 과거 용맹한 모습은 사라진 채, 의무



〈그림 4〉 강용석(2010), 한국전쟁기념비 시리즈, 연천군 태국 참전비. 흑백사진.

로 남겨 역사적 상흔과 기억뿐만 아니라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념관(물)을 포착한 사진의 경우 흑백사진으로 남겨져 마치 역사의 한 장면처럼 만드는 기법이 다른 사진작가들에게서도 자주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순택(2005)이나 전미숙(2001)의 경우, 기념관 내부의 기념비 혹은 전시물을 중심으로 형식적 전시물의 선택적 전시와 마네킹 같은 무감각한 기념관을 포착하거나 그 기념동상의 현재적 풍경과 기능성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포착했다. 위의 세 사진작가들을 통해 전쟁 미 체험세대들이 기념시설물을 방문한 후 바라볼 시선을 짐작할 수 있다. 흑백사진으로 남겨진 사진의 경우, ‘과거’를 회상하거나, 심리적으로 ‘먼 거리’를 의미한다는 특성이 있다. 즉, 사진장면은 타자화시켜 바라보는 ‘무관심’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적 감성을 결합한 사례들이 있다. 퍼포먼스와 사진예술의 결합적 측면에서 예술가 조습(2008)은, 기념관의 이미지에 작가 스스로 풍자한 상징적 의미를 퍼포먼스와 사진매체로 결합하는 제작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이러한 연극적 요소를 개입시켜 권력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조롱, 풍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의 경우, 국가수호시설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가 제시하였던 교육목표와 그 교육을 통해 형성된 기억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나



〈그림 5〉 노순택, 〈애국의 길 Paths of Patriotism 006〉, 2010.

적이고 도식적 이미지로서 청년들을 대상화했고, 그들은 곧 사회로 나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바로 앞날을 걱정하고 현실적인 군생활의 장면이나, 변화된 문화적 시선을 그대로 포착하게 된다.

강용석(2010)은 “2006-2009년, 강원도 고성 일대 및 통일전망대 국립 현충원등 한국전쟁 참전비만을 대상으로 3년 넘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풍경사진을 포착한다. 흑백사진으로

상징적 의미를 퍼포먼스와 사진매체로 결합하는 제작방식을 사용한다. 그는 이러한 연극적 요소를 개입시켜 권력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조롱, 풍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의 경우, 국가수호시설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가 제시하였던 교육목표와 그 교육을 통해 형성된 기억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나



〈그림 6〉 전준호, 〈형제의 상〉, 2008

타님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준호(2008)는 전쟁기념관의 기념을 목적으로 한 예술작품들을 통해 전쟁을 기념하는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술가 난다(2010) 역시 이와 동일한 이미지로 전쟁기념관의 기념비인 <형제의 상>을 재현하고 있는데, 이때 재현한 형제의 상에서는 가상현실을 옮겨온 것 같

은 느낌을 준다. 위의 사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는 '전쟁'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 체제를 대상화한다는 것이다.

사진 속의 기념시설물들은 현 교육정책, 정치, 사회를 비판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이 드러난 현장에서 사회적 불평등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되는 기념물들의 육중한 무게를 느끼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포착한다. 이는 마치 가상현실에서 경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던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최초로 영감을 받았던 전쟁에 관한 기억은 더 이상 '폭력'의 경험으로 부터 기억이 아닌 '전쟁기념(관)물'이라는 주변 환경, 시설물이라는 역사가 만들어낸 이미지로부터 인식한다. 즉, 전쟁을 인식하는 사고의 기준이 가능한 범위는 국가가 '공식기억'의 전승을 목적으로 제작했던 '기념관' 혹은 '기념시설물'이라는 공간의 체험이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사진작품 이미지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국내의 분단현실을 다룬 예술품이나 영화가 끊임없이 주목받는 경우만 보아도 해외에서 한국전쟁을 인식하고, 냉전의 시대로부터 지속되는 '갈등', '분쟁'지역을 인식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외부에서 이러한 예술작품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인식의 매개체이자, 과거의 기억이다. 영화나 낡은 사진 속에서 추억했던 과거의 기억, 이미지를 축출하여 만든 시각이미지가 공식기억화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공공의 형태로 재생산해서 보여준 예술작품은 이제, 하나의 장소 기념관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토록 시설물을 체험하고 만들어낸 개인의 자전적 기억을 볼 수 있는 매개체는 바로 국내의 예술가들이고 이것이 아직 계속된

전쟁, ‘끝나지 않은 역사’의 자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전쟁기념관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장소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다.

단순히 공식기억과 전승도구로서의 기념시설물, 집약된 체계로 나타난 전쟁기념관 전시, 이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전시교육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미지 창출’ 과정에서 ‘발상’·‘기록’·‘전시’·‘교육과정’ 과 국가 체제가 결합된 복합적 산물로써 우리 스스로 느낀 감수성은 ‘예술’로 공감할 형성할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의 관람자를 통해 무한한 재생산을 하게 될 전쟁기념관의 긍정적 모습이 예술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는말

국가의 교육관이 집약적으로 전시되는 ‘장소’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건립된 전쟁기념관이라는 ‘장소’는 국가관과 창의적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모순된 교육목표가 완전히 합치되지 못한 채 충돌되는 장소이다. 또한 이 충돌현상을 실제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 유일하고 역동적 공간이기도 하였다. 즉, 국내의 기념시설물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쟁의 기억과 그 교육적 영향력을 집약적으로 드러내 우리의 기억을 마주하는 장소로서 기능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 체제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문화적, 교육적 충돌 지점을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미의 공간이다.

전쟁을 전시한 기념관은 ‘폭력’과 ‘평화’라는 극단적 개념을 교육으로서 제시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 국내의 분단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히 안보와 평화통일의 개념을 명확하고 동기가 확실한 교육내용으로 위치시키지 못해온 것은 대부분 한국의 분단현실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 규정되어왔기 때문이다.

해외 기념관의 교육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처럼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국가간 ‘갈등’이나 ‘인권’ 이라는 현재의 공통적 사안으로 문제를 확장시킨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식기억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념관을 대상화하여 공식기억을 해체하고 역사인식을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시킨 사진가, 혹은 ‘전쟁’ 자체를 비판하는 일군의 예술가들의 시각이미지를 주목할 필요성도 제



<그림 7> 노순택, (2009) 좋은
살인 연작 중 일부, 서울 Seoul

시하였다. 이들 사진예술가들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공식기억'을 수용해 예술로서 표현시켰으며 바로 여기에서, 현 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합치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쟁기념관은 '국가관 형성'과 '창의적 인간양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충돌을 일으키는 공간임과 동시에 교육목표에 합치되는 표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역동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전쟁'만큼 이미지와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주제도 없으며, 그만큼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세대 간 공식기억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 교육, 즉 '총체적 (안보)교육'으로서 지식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전쟁기념관'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세계관과 안보 의식을 기르는 공간으로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11).
- 교육과학기술부, 『하나 됨을 위한 나라 지킴이』 (2011).
- 국가보훈처, 『6.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 시설물 도감』 (2010).
- 전쟁기념관, 『전쟁 기념관』 (2012).
-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1997).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2).
- 통일부, 『통일백서』 (2011).
- 단행본 및 논문자료
- 강용석, 『한국전쟁기념비』 (서울: 한미사진미술관, 2010).
- 김상미, 「공식기억 창출과 전쟁교육 장치로서의 전쟁기념관」, 『문화예술교육연구』 제 7집 2권(2012). 45-70쪽.
- 노순택, 『분단의 향기』 (서울: 당대, 2005).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關東·東北 지역 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선웅, 『국가수호시설의 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전적기념물로 본 국가수호정신 고찰』 (사)민족문화연구소, 국가보훈처. 13 (2012).
- 이병준, 김미화, 「기념관, 역사, 미학 그리고 학습: 미국과 독일사례의 연구」, 『조형교육』 제 31권 (2008), 151-156쪽.
- 전미숙, 『우상의 자리』 (서울: 눈빛, 2001).
- 정호기,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서울: 오름, 2007).
- 정호기, 「전쟁 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 『민주주의와 인권』 8권 3호. (2008), 183-212쪽.
- 정호기, 「전쟁 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과 공간의 변화: 한국에서의 전쟁기념물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쟁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서울: 휴머니스트, 2009).
- 최호근,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효용과 전략 -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홀로코스트 교육 비교」, 『역사교육』 제 120권(2011), 129-161쪽.

최호근, 「홀로코스트의 공간적 재현 : 독일, 이스라엘, 미국의 대표적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제 18호(2009), 47-78쪽.

최호근, 「미국에서의 홀로코스트 기억 변화」, 『미국사 연구』, 제19권(2004), 133-158쪽.

한홍구, 「교토 리츠메이칸대학 국제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 Available:

<http://www.peacemuseum.or.kr/.2004.2>

리츠메이칸 국제 평화 박물관, 「리츠메이칸 . 전시소개 - 미완의 작품/ 영원의 시작.

무언관의 수장작품에서 예술의 원점을 생각하다」, Available:

http://www.ritsumei.ac.jp/mng/er/wp-museum/korea/exhibition/2012/exhibition2012_3.html

홀로코스트 기념관 <http://www.ushmm.org/>

6.25 60주년사업위원회, <http://koreawar60.kr/main.asp>.

현충시설 통합 정보 <http://narasarang.mpva.go.kr/hyunchung/intro/index.html>.

히로시마 평화박물관 <http://www.pcf.city.hiroshima.jp/>

Cultural Politics of ‘Memory’ Issued in the Education of the War Memorial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education—

Kim, Sang-Mi

This paper examines the ripple effect of exhibit educat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War Memorial that is one of state’s official organizations. From the works of contemporary photo artists, this paper particularly pays attention to the transmission pattern from the exhibit experience to ‘the cultural memory,’ and ‘autobiographical memory.’ This paper addresses the changes of photo artists’ works along with the analysis of 2009’s revised education course (art department) to foresee the future influence of unification education that will be actualized by state’s institute.

The building intention of War Memorial and the purpose of exhibit education are basically the transmission of ‘official memory.’ In particular, War Memorial in South Korea is the very place where people are educated the ‘cause’ of divided country. In this sense, War Memorial functions as ‘the space for creating official memory’ that educates people state’s identity. However, when we examine the ideal human character or the educational objectives that 2009’s revised education course pursues, this function of War Memorial that emphasizes state’s viewpoint does not fit to the aim that government departments or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pursue. Considering the revised education course that particularly focuses on ‘experiential activity’ in community cultural facilities, their different direction can influence not only art department but also state’s cultural competi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objectifies War Memorial that uses official memory for ideology to focus on the photo artists who dissemble official

memory and understand history in value-neutral and object point of view or who criticize war itself. These artists sublimate this official memory to art with their independent and critical appropriation. Here, we can find the accordant point with current revised education course. In this respect, War Memorial is a dynamic space where the collision and also the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 purpose appear. There is nothing equal to 'war' that spreads images and information fast. As much as its rapid speed, it requests critical thoughts to verify the meaning of information. Therefore, it is time to realign War Memorial as the space where restructures the knowledge for 'universal peace education' by closing the distance between generations. It can be a place both for critical thinking and for the sense of national security.

Key Words: War Memorial Mueseum, Learning in Memorial Mueseum, Unified education, Cultural Politics

필자 E-Mail: ksm415@naver.com (김상미)

투고일: 2013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6일

